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 상

김진호 · 장권순 · 이태환 지음

역락

김진호(문학박사)

(현) 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 경원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 주임교수

장권순(문학박사)

경원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 주임교수

이태환(문학박사)

경원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 전담강사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상)

문화(상)

본 저서는 2010년도 강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상)

김진호 · 장권순 · 이태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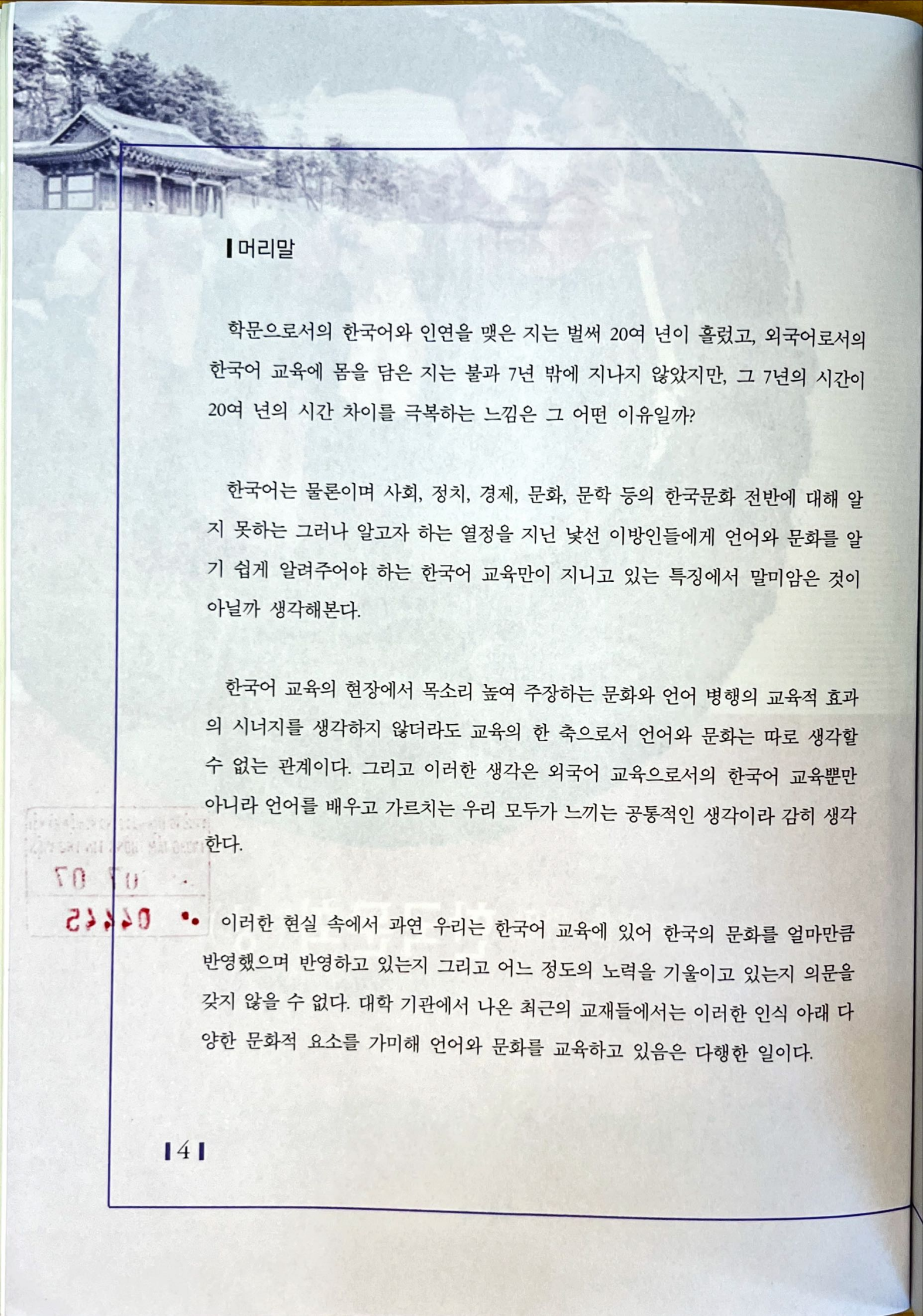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IỆP HÀ NỘI
TRUNG TÂM THÔNG TIN THƯ VIỆN

07 07

04445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KOREAN DEPARTMENT

역락



■ 머리말

학문으로서의 한국어와 인연을 맺은 지는 벌써 20여 년이 흘렀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몸을 담은 지는 불과 7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7년의 시간이 20여 년의 시간 차이를 극복하는 느낌은 그 어떤 이유일까?

한국어는 물론이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문학 등의 한국문화 전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알고자 하는 열정을 지닌 낯선 이방인들에게 언어와 문화를 알기 쉽게 알려주어야 하는 한국어 교육만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문화와 언어 병행의 교육적 효과의 시너지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교육의 한 축으로서 언어와 문화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공통적인 생각이라 감히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 한국의 문화를 얼마만큼 반영했으며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학 기관에서 나온 최근의 교재들에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가미해 언어와 문화를 교육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KOREAN DEPARTMENT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일상 회화의 대화 형식에 한국 문화적 요소들을 직접 가미시킨 교재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기초적인 것과 전문적인 한국 문화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도 필요하리라 본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저자와 몇 명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선생님들이 뜻을 모아 그 기초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기술하기로 하였으며, 그 뜻을 모은 지 약 2여 년의 산고 끝에 본서가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 장황하게 얘기했던 문화의 중요성만큼이나 그 내용이나 체계, 그리고 다양한 시각적 자료 등을 갖추지 못함에 부끄럽지만 이를 계기로 좀 더 나은 문화 관련 저서들이 출간되기를 바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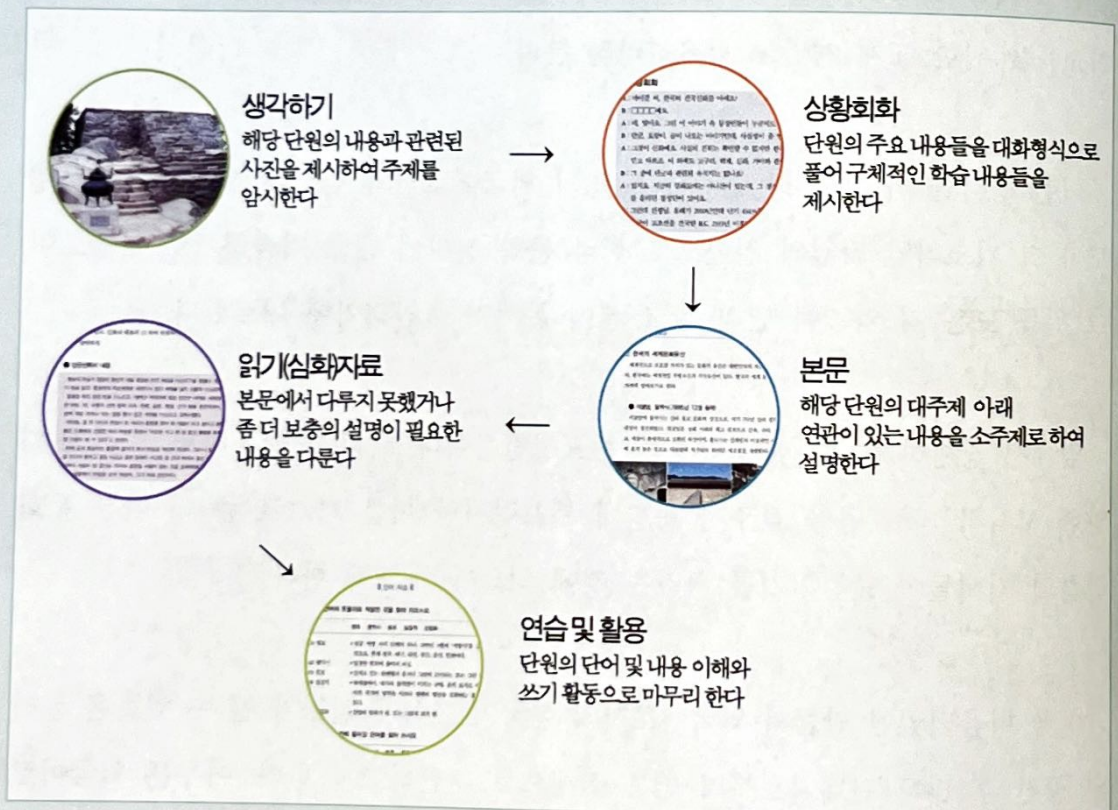
처음 마음먹었던 만큼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일조가 될 수 있음은 본서의 공간 후 많은 관계자로부터 받는 질책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아무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의 세계화에 일조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한국어 교육의 투자에 아끼지 않으시는 역락출판사 이대현 사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1년 2월 10일

김진호

I 일러두기

[본서의 구성]



[본서의 활용]

총 10개의 대주제는 그 하위로 2에서 4개 정도의 소주제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본서의 전체에 약 29개 항목이 있다. 이들 항목에 대한 서술은 모두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생각하기’는 소주제 내용을 학습하기에 앞서 해당 주제에 대해 경험한 것이나

알고 있는 것 등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과정이다. 또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능한 이 시간을 학습자에게 충분한 정도로 노출시켜 앞으로 학습할 내용에 대해 학습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상황회화’는 ‘생각하기’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할 주제에 대해 인식한 후, 본문에서 배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대화를 통해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정규 과정의 한국어 회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대화의 형식이 아닌 만큼 다양한 회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본문’은 해당 주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내용, 약 2내지 5가지 정도의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읽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직접 체험 등의 교실 밖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 느낌이나 자국 문화와의 비교 및 대조 등의 ‘말하기’ 활동도 가능하리라 본다.

‘읽기(심화) 자료’ 부분은 본문의 학습 중 그와 관련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한국인의 생활 속에 내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들의 한국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등을 담고 있다. 학습과 실생활의 활용 두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연습·활용’은 본문과 읽기(심화)에 나오거나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학습자들의 내용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본문의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으며, 배운 내용과 관련한 장소를 찾아보고 느낌을 정리할 수 있다.

